

지역주민 대상 家族음악회 개최

대경중·추산초 연합 윈드오케스트라 연주

대경중학교(교장 김삼수)는 개교한지 3년째 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인근 추산초등학교 학생들과 연합한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소홀음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본지는 최근 눈에 띄는 교육활동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대경중학교의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우리사회의 귀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지난 10월은 4주간에 걸쳐 대경중학교와 추산초등학교 연합 윈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었다. 추산초등학교 30명과 대경중학교 20명으로 구성된 이 윈드 오케스트라는 9일 솔모루 공원, 12일 대경중학교, 18일 추산초등학교, 23일 상운아파트 총 4회에 걸쳐 연주했다. 대경중학교 뿐 아니라 공원과 아파트에서도 열렸던 이 음악회는 지역주민과 어울려 함께 하는 가족음악회로 300명이 넘는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대경중학교 관악부는 올 4월 포천지역의 관악부 초·중·고 연계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됐다. 또한, 관악연주를 통하여 심신의 단련과 정서를 함양시켜 심신이 건강한 학생을 기르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의 시설과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까지는 추산초등학교와 포천초등학교에서 관악반 활동을 하였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적절한 관악교육을 받지 못해 길러온 재능을 더욱 발휘하지 못했던 것에 반해 대경중학교의 관악부 신설로 인해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연계수업이 가능해 졌다. 나아가 포천일고등학교로 가는



10월 9일에 있었던 솔모루 공원공연 첫 공연으로 우리 지역의 대경중학교에 윈드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첫 시발점이 되었다.

학으로 관악지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포천지역의 관악부가 포천에서의 중요

한 위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교육 실현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자아정체성 형성 및 인성교육

대경중학교는 올해 '학습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방과 후 교육 활동 활성화'라는 주제로 방과후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방과 후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구안·정착시켰다. 특히 학교가 지역 사회 중심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학교를 구축하기 위해 1학기 동안 이루어진 방

과 후 교육 활동의 발표회를 지역 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7월7일 인근 아파트 노인관에서 생활 미용반, 비즈공예반, 점핑클레이반, 트로트 신동 최준원 학생의 가창, 관악부원의 호른 연주가 어우러진 특색 있는 학습 활동의 평가의 자리에서 풍성한 공동체가 함께 한 신명나는 어울림 한마당이였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학생, 학교, 지역 사회 모두 새로운 인식의 변

화를 가져왔다. 학생들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되새기고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자아 정체성 형성 및 인성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학교 측면에서는 지역 사회 속에서 향후 학교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재조명 할 수 있었으며 지역 사회로서는 방과 후 교육 활동에 대한 경험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적인 연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열린 교육은 교육 공동체 모두가 참여할 때 비로소 가치를 발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경중학교 학생들이 할머니 손톱손질을 해 드리고 있다.

철저한 기초 과학교육 생물올림피아드 금상

대경중 2학년 장창현 학생 중학생부 금상 수상

대경중학교는 개교한지 3년 밖에 안 되는 역사가 짧은 학교이지만 그 동안 건전한 학교 풍토 조성 및 학교 전통 문화 정착을 위해 교과 학습, 인성, 생활 지도에 주력하여 지역 사회가 거는 기대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특히 특기·적성 관련 예체능 분야와 경기도학업성취도 평가 등 학력을 겨루는 분야에서 실력을 잘 발휘하여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예로서 평소 기초 과학 교육에 충실한 과학·영재 교육을 바탕으로 2007년 9월 28일 한국생물화학회가 주최한 제

11회 한국생물올림피아드에서 2학년 장창현 학생이 중학생부 금상을 차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대경중학교 관계자는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년간 준비가 밑바탕이 되어야 이를 수 있는 일을 짧은 기간 동안 이룩할 것을 볼 때 학생 자신의 확고한 목표 의식, 부단한 노력과 함께 이를 잘 발전하도록 이끌어 준 본교 과학 교육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거둔 결실"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취재파일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무산위기

특별법 개정안 자동폐기 가능성 높아

내년 5월 국회입기 만료됨에 따라 불투명



하승완 본지 취재국장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이 정기 국회 파행과 예산확보에 따른 정부 부처간 이견차이로 인해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 북부의 지자체와 상공인 등은 민자를 유치해 공여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공전되면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 자체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예산에 공여지 개발비용을 반영하려고 기획예산처와 수차례 걸쳐 협의를 해 왔지만 결론을 얻지 못해 내년 예산 반영 자체가 어려워진 상태다. 공여지 개발사업으로 지역개발을 하려고 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군공여구역 특별법과 관련해 포천시 행정자치부에 잠입철도 차량기지 유치사업 등 12조6천여원에 달하는 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이중 행정자치부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포천시관광레저개발사업(영북면, 일동면, 이동면) 13,879,425㎡(420만평)과 신북면 덕둔리 관광레저사업 815,621㎡, 신흥산업단지 조성사업, 화현기구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4건을 선정된 바 있다.

미군 공여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나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제공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한다. 공여지에는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까지 포함한다.

미군공여지는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여기간 또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무기한이다. 또 제5조2항은 아무런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군의 사용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까지 두고있다.

주한미군이 공여된 시설과 구역 면적은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가 발효된 직후 1969년 277개 기지 4922천644만평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96개 기지 7천400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 주변 면적은 5천 199.11km로 전국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천시 773.66km, 연천군 695km, 가평군 489km로 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의 면적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포천시 지역 미군반환 구역은 창수면에 바이오넷 훈련장과 외진 수 레인지 훈련장이다.

포천시는 중앙정부의 도시기분계획 승인으로 495.8만㎡ 이상의 신도시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유치를 비롯해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계획, 첨단산업 유치 등으로 자족도시를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포천시의 희망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풍요

로운 도시로 만들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포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중첩규제로 집하나 짓고 고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포천시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1개 지역에 5군단, 6군단 등 2개 육군 군단이 주둔하고 있고 2개 사단에 7개 여단 등으로 군사도시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다.

1천352만㎡에 달하는 영평사격장, 1천983만㎡의 승진훈련장을 비롯해 모두 8개소에 한미군 사격장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일일이 설명하기조차 힘들다.

미군이 들어오는 지역인 평택시에는 특별법을 만들어 거대한 예산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미군이 떠나가는 지역에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더욱이 영평사격장처럼 영구공여지 형태를 띠고있는 지역에는 지원할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회에 상정된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개별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행위제한과 중첩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규제특례와 관련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발전종합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지정 등 토지이용 규제를 50만㎡ 이내의 범위에서 해제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내용중 30만㎡ 이내에서 공장설립,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둘째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4년제 대학 이전결실 외에도 신설이 가능토록 해 달라는 것이다.

셋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지원도시 사업구역 지정에 민간사업자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넷째는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을 활용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관광지의 지정만 인허가 의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으로 확대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해 달라는 것이다.

포천시의 경우 국가 예산을 반영하는 지원사업이 어려울 경우 민간제안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지역 국회의원의 반발로 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는 미군공여지 관련 사업비 반영은 2008년에 가서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행정자 소관사업의 국고지원은 2009년 이후부터 반영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천시의 경우 거대한 국가지원 사업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포천시가 발전전략으로 삼고있는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사업과 신도시 사업, 광역철도 사업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경 '얼씨구 좋다'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공연 축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는 포천시에 경기민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04년3월16일 창립한 단체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소리 전수는 물론 우리사회 노인분들과 함께 흥겨운 가락을 함께 나누는孝공연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신읍동 23-4번지 유림회관 3층에 새롭게 연습실을 마련하고 학생들은 물론 시민어려분들을 대상으로 경기소리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천시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영평팔경가를 소리극으로 탄생시켜 매년 무대에 올리고 있으며 올해에도 역량 있는 소리꾼의 캐스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력은 비록 부족해도 경기소리에 관심과 뜻이 있는 학생이나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시 : 2007년 11월 3일(토) 오후 5시
- ◆장소 :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
- ◆주최 : (사)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지부장 박영실)
- ◆후원 :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예총, 포천문화원, 경기문화재단, 포천신문사, 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 후원회
- ◆협찬 : 세이프건설(주) 대표이사 전방진



- 박영실 지부장 프로필(사진)
-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목계월 선생) 경기민요 이수자
 - 백제예술대학 전통공연과 졸업
 - 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 민요분과위원장/이사/대의원
 - 박영실 경기소리연구소 소장
 - 포천시 여성대학 강사
 - 1989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목계월 경기12집가 전수소 입문
 - 1996년 목계월 경기민요 보존회 전수
 - 200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
 - 2002년 일동초등학교 국악반 강사
 - 2003년 포천 일동초등학교 국악반 강사
 - 2003년 소흘읍 동남고등학교 국악반 강사
 - 2003년 경기문화재단 경기민요 지정 강사
 - 2004년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 지부장
 - 2005년 포천시립도서관 어린이 여름학교 경기민요 강사
 - 1998년 전국 백일장대회 장원
 - 1999년 전국 경서도소리 경창대회 준우수상
 - 2000년 전국 민요경창대회 토속민요 우수상 수상